

2019

'19.11.22.(금) 08:30~16:30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2F)

한국일보, 2019 코리아 포럼

(11/18 17시 수정)

“한-아세안 30년 : 공동 번영의 신시대로”

2019. 11. 22.

국제사업본부
아중동실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입니다.
저는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 민간 파트너 기관인
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¹⁾ 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랜 전통의 한국 대표 언론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2019 코라시아 포럼’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해 한-아세안 대화수립 30주년을 맞아
다음 주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담과
제1차 한-메콩 정상회담이 예정된 터라
오늘 포럼이 더욱 각별하게 느껴집니다.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한국일보 승명호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각 정당 대표님들은
오늘 포럼의 주제인
‘아세안과의 공동 번영’에 관해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 Korea-South & Southeast Asia Business Coalition <동시통역사용 공식 명칭>

바쁜 시간을 내어 자리해주신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님,
아피싯 웻차치와 전 태국 총리님과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님,
그리고 다른 내외 귀빈 여러분들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세안의 가능성]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세계경제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정치적 긴장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글로벌 번영을 지탱해온
자유무역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계경제의 앞날이
비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세안 경제가 역동성을 더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세안은 새로운 희망의 땅입니다.
6억5,000만 인구²⁾와 30세에 불과한 평균 연령,
5%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³⁾을 바탕으로
중산층이 갈수록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2030년 세계 중산층 소비의 59%가
동남아 지역에서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아세안은 역내 경제통합을 모멘텀 삼아
한국을 비롯한 주요 파트너들과 무역협정을 맺는 등
무역 자유화에도 적극적입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지정학적 중요성과
풍부한 자원,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GDP 3조 달러의 거대 경제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경제 협력]

한국 정부와 경제계는 이러한 아세안을
최우선의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교역과 투자를 늘려왔습니다.

2) 인구 : 아세안(6.47억 명, 세계 3위, 세계 8.7%, 2017년 기준)

3) 경제성장률 : 아세안 5.3%(세계 3.6%, 2017년 기준),

지난 2007년 한국 정부는
아세안과 FTA를 발효시켰는데,
이는 한국이 세계 주요 경제권과 체결한
첫 번째 FTA입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
양자 FTA를 체결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FTA 체결 성과는
무역에서 잘 나타납니다.

작년 기준 아세안은 우리 전체 수출의
16%를 차지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 되었습니다.

아세안에게 한국은 다섯 번째 수출시장이자
2위의 투자 대상국입니다.

한국의 아세안 투자는
글로벌가치사슬에 기반한 협력 강화로 이어져
두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세계 진출의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지역의 무역과 투자 강화는
근면과 예의를 특징으로 하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를 바탕으로
공감대를 넓히면서
문화 교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간 교류인원이 1,10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아세안에서는 K-pop이,
한국에서는 동남아 음식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상생 번영]

한국과 아세안은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를 바탕으로
상호 이해와 존중의 틀을 확고히 하면서
미래 동반자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아세안에 대한 이해도,
즉 ‘아세안 리터러시(ASEAN literacy)’를 높이면서
한국에 오신 아세안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한국의 다문화 가정, 이주 노동자, 유학생들이
차별 없이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세안은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모바일 사용률과
혁신을 장려하는 활발한 비즈니스 환경을 통해
고젝이나 그랩 같은
세계적인 스타트업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IT 경쟁력을 바탕으로
소프트파워를 강화 중인 한국이
아세안의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말씀]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과 아세안은 주변 환경에 따라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작용과 학습을 통해 확장이 가능한
능동적인 관계입니다.

선 의와 우호에 기반해
얼마든지 관계를 확장하고
내실을 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포럼은 두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2019 코라시아 포럼’의 개막을 거듭 축하드리며,
이 자리를 마련한 한국일보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